

편지·사진 한 장에 살아 숨쉬는 한국 근현대사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

박건호 지음

역사교사이자 '노래와 소리로 보는 우리 역사'의 저자 박건호는 30여년 전 신석기문화를 체험했다. 대학 입학 후 강원도 오지로 첫 학술답사를 떠난 자리였다.



기원전 8000년 전 신석기인들의 움집터가 발견된 곳에서 토기 조각을 발견했다. 흥분한 그는 주위를 맨손으로 파헤치고 연이어 조개껍데기 화석, 동물 뼈 등을 발견했다.

"1만 년 전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순간이었다. 눈을 감자 바닷가 모래밭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토기를 굽고 있는 사람들, 조개로 만든 팔찌를 손목에 차고 놓고 있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남자들, 조와 수수를 수확해오는 여자들……"

이후 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



1945년 12월 31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반탁시위에서 연설하는 김구의 모습.

전히 학생을 가르치고 역사자료를 수집하는 삶을 산다. 이른바 '컬렉터'의 삶을 즐긴다. 우연히 찾은 토기 파편은 이후의 삶을 규정했다. 자료에 숨겨진 역사적 코드를 추적하고 옛사람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일은 역사의 퍼즐을 맞춰가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저자가 펴낸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는 평범한 물건이 역사가 되는 순간을 조명한다. 한마디로 어느 컬렉터의 특별하고 가슴 뛰는 역사 읽기다.

흔히 '컬렉터' 하면 오래된 유물이나 값비싼 예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저자의 수집품은 그것과는 조

금 다르다. 사진 한 장, 영수증, 일기, 편지, 사직서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묻어 있는 생활 자료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사소하지만 하나하나를 가슴 뛰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일기장, 팸플릿, 신문, 잡지, 생활 문서, 사진 자료만이 아니라 크거나 재질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역사 자료를 수집했다. 그 자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려면 어떤 것은 화난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것은 흥겨움과 기쁨의 감정을 담고 있다. 또 어떤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저자가 아끼는 수집품 중에는 낡은 태극



독립협회 보조금 영수증.

기가 있다. 사괘를 먹으로 대충 그린 것으로 태극은 빨간색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간색 위에 파란색을 덧칠한 흔적도 있다. 추정하건대 광복을 맞은 사람들이 태극기가 없어 주위에 있었던 일장기를 배경으로 손수 태극기를 만들었다.

책은 19세기 말부터 유신체제가 만들어진 1970년대까지 시대상을 아우른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사인은 여전히 당시의 감동을 선사한다. 우승 직후 직접 사인지 앞면에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이 적혀 있다.

이름 밑에는 'KOREAN'이라고 쓰여 있는데 '고개 숙인 챔피언' 손기정은



지원병 훈련소에 입소하는 조선인 지원병들의 모습을 보도한 '동맹뉴스'.

작은 종이에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써 넣었다.

콜레라 창궐로 인한 귀향 명령 증명서도 눈에 띈다. 1946년 여름 콜레라가 유행을 하자 무안 공립농림학교에서 학생 장상기에게 발급한 귀향 명령 증명서다.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중 20대 청년의 전시 수첩은 지난한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전복 김제 출신 차영근 소대장이 전쟁 중 남긴 전시 수첩은 11개월에 걸쳐 쓴 일기다. 전쟁상황과 부대 생활을 깨알같이 적어 놓은 글에는 치열한 고지전의 참상과 가족, 고향

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녹아 있다.

이밖에 신탁통치에 반대하며 피로 쓴 사직서, 한국전쟁 중 포로수용소에 갇힌 청년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등도 눈에 띈다.

수집품을 남긴 주인공 대부분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무명의 아들이지만 이들이 수집품을 매개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볍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너머의 세계로 안내하는 귀한 자료이며 그야말로 온전히 살아 있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라고 강조한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파란 눈 검은 머리

마르그리트 뒤라스 지음, 김현준 옮김

"이 이야기는 내가 글로 쓰게 되었던 사랑, 그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끔찍한 한 사랑 이야기다."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생전에 했던 말로, 뒤라스가 지칭한 작품은 '파란 눈 검은 머리'이다. 소설 '연인'과 영화 '히로시마 내사랑' 등으로 유명한 뒤라스가 1986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특히 작품은 뒤라스가 60대에 접어들어 만난 팬이자 동반자로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해준 '안 앙드레아'에게 헌정한 소설로 유명하다.



이번에 재출간된 '파란 눈 검은 머리'는 희곡과 소설의 경계에 있는 목소리로 쓴 작품이다. 파란 눈 검은 머리의 젊은 외국인을 동시에 욕망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의 부재를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이야기다. 발표 당시 독특한 글쓰기 형식과 아울러 '동성애'라는 화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가가 72세에 쓴 이 작품은 주제나 형식면에서 그의 문학적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이다. 뒤라스의 소설은 지나온 인생 여정과 무관치 않다. 베트남 사이공 근교에서 태어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기억과 고통, 사랑과 죽음, 욕망과 부재 등을 대중성과 서정성이 묻어나는 이야기로 풀어내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했다.

이 소설은 모태가 된 단편 '죽음의 방'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실패의 글쓰기가 작품의 완성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또한 1980년 여름부터 함께한 뒤라스의 연인이자 연하의 동성애자 안 앙드레아와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 뒤라스는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비극적으로 남은 불가능한 사랑에 대해 질문을 하며 하나의 순수한 탐색을 시도한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훈을 읽는다

김주언 지음

김훈은 21세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명이다.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소설은 독특한 빛을 발한다. 고회를 넘겼지만 여전히 김훈은 연필을 쥐고 원고지를 놀려가며 글을 쓴다. 자기만의 문체와 미학을 견지하는 그는 기자 당시 필명을 날렸다. 그가 기자를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들어서고 쓴 책 '칼의 노래'는 동인문학상을 안겼다. 당시 그에게 쏟아진 찬사, "한국문학에 비락처럼 쏟아진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훈 문학의 진면목은 무엇일까. 섬세하고 정치한 시선으로 김훈 소설의 전모를 읽어낸 책이 발간됐다. 문학평론가인 김주언 단국대 교수가 펴낸 '김훈을 읽는다'는 김훈 문학에 대한 탐구서다.

53세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고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김훈은 여전히 왕성한 필력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 화제작에 대한 단편적인 평문이 발표됐을 뿐 총체적인 시각에서 그의 문학의 전모를 조망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이번 책이 지닌 인상적인 매력은 김훈의 작품을 분석하는 유연함과 적실함이다. 저자는 김훈의 소설들을 조망하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를 동원한다.

비판의 지향과 테마의 유사성, 상호텍스트성에 따라 전체 4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 4부까지를 구성하는 12편의 원고는 비평적 감수성과 텍스트를 바라보는 엄밀한 시각의 산물이다.

마지막 4부에는 저자가 김훈과 나눈 대담이 실려 있다. 최근 들어 김훈이 자신의 문학세계를 발언한 것 중 가장 유의미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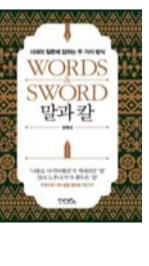
<삼인·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말과 칼

임해성 지음

서양과 동양의 근세 이항기를 살았던 마키아벨리(1469-1527)와 오다 노부나가(1534-1582)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찾아낸 대안을 각각 '말'과 '칼'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한 책이 출간됐다.



'말과 칼'은 마키아벨리의 '말'과 노부나가의 '칼'을 통해 인류 역사가 중세를 벗어나 근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살핀다.

글로벌비즈니스컨설팅 대표이사이자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중인 저자 임해성은 세계사 중 중세에서 근세로 전환하던 시기에 주목했다. 유럽 역사가 근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의 마키아벨리가 써 내려간 '말'과 일본 전국시대에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고자 한 오와리(尾張) 소국 출신 노부나가 휘두른 '칼'을 추적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관찰했고, 의문을 품었으며, 그 해답을 얻고자 세상에 없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열어나갔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역사적 사실로만 바라보면 그들은 모두 실패했다. '군주론'으로 대표되는 마키아벨리의 '말'은 그가 그토록 귀 기울여주기를 바랐던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둘 때까지 험하게 휘둘러졌던 노부나가의 '칼'은 결국 그를 몰락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모두 후대에 불한당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저자는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였으며 그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위인들이었다고 말한다.

<안타레스·1만7000원>

/전재재 기자 ejf621@kwangju.co.kr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